



「2022년 시험대비」 국어 모의고사 및 해설(5)

천지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9. 다음 글의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대체로 크게 정악과 속악으로 나뉜다. 정악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즐기던 음악이고, 속악은 일반 민중들이 가까이 하던 음악이다.

개성을 중시하고 자유분방한 감정을 표출하는 한국인의 예술 정신은 정악보다는 속악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 속악의 특징은 한 마디로 즉흥성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될 수 있다. 판소리나 산조에 '유파(流派)'가 자꾸 형성되는 것은 모두 즉흥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흥으로 나왔던 것이 정형화되면 그 사람의 대표 가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독특한 것이면 새로운 유파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즉흥이라고 해서 음악가가 제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곡의 일정한 틀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즉흥 음악의 특색이다. 가령 판소리 명창이 무대에 나가기 전에 “오늘 공연은 몇 분으로 할까요?” 하고 묻는 것이 그런 예다. 이 때 창자는 상황에 맞추어 얼마든지 곡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 음악에서는 어렵없는 일이다. 그나마 서양 음악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령 4악장 가운데 한 악장만 연주하는 것 정도이지 각 악장에서 조금씩 뽑아 한 곡을 만들어 연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음악에서는, 특히 속악에서는 연주 장소나 주문자의 요구 혹은 연주자의 상태에 따라 악기도 하나면 하나로만, 둘이면 둘로 연주해도 별문제가 없다. 거문고나 대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다. 전혀 이상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만으로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연주를 하더라도 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즉흥과 개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속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나위다. 현재의 시나위는 19세기말에 완성되었으나 원형은 19세기 훨씬 이전부터 연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위의 가장 큰 특징은 악보 없는 즉흥곡이라는 것이다. 연주자들이 모여 아무 사전 약속도 없이 “시작해 볼까” 하고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처음에는 서로가 맞지 않는다. 불협을 일색이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호흡이 맞아 떨어지면 협음을 낸다. 그러다가 또 각각 제 갈 길로 가서 혼자인 것처럼 연주한다.

이게 시나위의 묘미다. 불협음과 협음이 오묘하게 서로 들어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음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즉흥곡이라고 하지만 '초보자(初步者)'들은 꿈도 못 꾸는 음악이다. 기량이 뛰어난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음악이다. 그래서 요즘은 시나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 요즘에는 악보로 정리된 시나위를 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시나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악보로 연주하면 박제된 음악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음악인들은 시나위 가락을 보통 '허튼 가락'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대로 '즉흥 음악'으로 이해된다. 미리 짜 놓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주어진 장단과 연주 분위기에 몰입해 그때그때의 감흥을 자신의 음악성과 기량을 발휘해 연주하는 것이다. 이럴 때 즉흥이 튀어 나온다. 시나위는 이렇듯 즉흥적으로 흐드러져야 맛이 난다. 능청거림, 이것이 시나위의 음악적 모습이다.

- ① 판소리나 산조는 유파를 형성하기 위하여 즉흥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 ② 오늘날 시나위를 잘 계승·보존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③ 속악과 마찬가지로 정악도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보다 자연발생적인 변주를 중시한다.
- ④ 불협음과 협음이 조화를 이루는 시나위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기량이 출중해야 한다.

[정답] ④ ♣ 난이도 중상

【해설】 비문학/독해

내용을 토대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문단에서 시나위는 즉흥곡이라고 하지만, 초보자는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20. '랑그'와 '파롤'의 속성을 잘못 짚은 것은?

언어를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구별하여 인식하는 일이 많다. 랑그와 파롤은 각각 악보(樂譜)와 구체적인 연주(演奏)에 비유된다. 가령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란

곡(曲)이 있다면 이 곡은 누가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또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부를 때마다 다 얼마간씩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고파'란 곡임에는 틀림없다. 언어도 이와 같은 구분이 가능하며 또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롤은 개개인의 언어이며, 랑그는 그 사회의 언어, 그 사회에서 약속이 되고 공인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하였을 때 언어학자가 주된 관심을 가지는 쪽은 말할 것도 없이 랑그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파롤에서 자료를 찾더라도 개인차를 제거하고 난 랑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 랑그와 파롤의 구분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수행(performance)의 구분이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행위가 언어수행이고, 자기 모국어에 대해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언어능력이라는 것이다. 언어수행은 부주의, 피로 등으로 인해 또는 화가 너무 났다든가 술이 취했다든가 등의 이유로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언어능력은 이상적인 상태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언어학자가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언어능력이라고 주장된다. 실제로 실현되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모습을 따로 분리하여 인식한다는 점에서 랑그-파롤의 구분과 언어능력-언어수행의 구분은 공통된다. 랑그란 언어능력이란 우리가 다루는 언어는 얼마간 추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 | |
|-------|------|
| <랑그> | <파롤> |
| ① 구체적 | 추상적 |
| ② 심리적 | 물리적 |
| ③ 사회적 | 개인적 |
| ④ 항구적 | 순간적 |

[정답] ① ♣ 난이도 중상

【해설】 비문학/독해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랑그'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 청각영상이다. 반면에 '파롤'은 발화하는 개인마다 다르며 발화된 후 곧 사라지는 물리적 실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